

양현종 무너진 KIA '연승 뒤 연패'



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5회말 2사 2루 두산 김민석이 1타점 2루타를 치자 교체된 기아 선발 투수 양현종이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두산전 3대6 '루정 시리즈'

양현종 4⅓이닝 4실점...7회 2사만루 승부처 뒷심 부족
10안타 때리고, 5볼넷 얻고도 답답한 타선 결정력 부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상승세가 주말에서 멈췄다. KIA는 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6으로 패했다. 8연승 뒤 2연패. 주중 스윙 기세를 잊지 못하고 루정 시리즈로 돌아섰다. 순위는 5위를 유지했지만, 하위권 팀과의 6경기에서 4승에 머물렀다. 이날 KIA는 타선의 응집력이 아쉬웠다. 총 10안타와 5볼넷으로 9회를 제외한 때 이닝 주자를 내보냈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득점권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며 공격 흐름이 끊겼다.

결정적인 장면은 7회였다. 2-5로 뒤진 7회초. 정현창과 이호연의 안타, 김도영의 볼넷으로 2사 만루를 만들었지만, 외야 플라이에 그치며 득점하지 못했다. 승부처를 놓쳤다. 8회에도 2사 이후 3연속 안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이어진 2.3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1회 2사 1.3루 기회를 놓친 뒤 곧바로 실점했다. 무사 만루에서 3루수 병살타로 선취점을 내줬다. 3회에도 솔로포를 맞고 추가점을 허용했다. KIA의 반격은 4회였다. 2루타와 볼넷,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3루에서 김호령의 적시타와 정현창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다. 5회 다시 리드를 내줬다.

1사 3루에서 내야 땅볼로 실점했고, 이어진 2사 2루에서 1타점 2루타를 허용했다. 이후 6회와 7회 연속 솔로 아치까지 내주며 격차가 벌어졌다. 8회 박민의 1타점 2루타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더 이상 추격은 없었다. 선발 양현종은 4⅓이닝 8피안타(피홈런) 1사사구 3탈삼진 4실점으로 패전(1승2패)을 안았다. 타선에서는 카스트로가 4타수 3안타로 분전했고, 김호령은 5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관세를 뒤집기엔 부족했다. 전날 패배도 아쉬웠다. 2-2로 맞선 8회 김도영의 투런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볼넷이 곧바로 동점을 허용했다. 연장 10회초 무사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한 KIA는 이어진 10회말 1사 2루에서 결승 2루타를 허용하며 시즌 첫 연장 패배를 당했다. 연이층 접전에서 뒷심 부족이 드러난 셈이다. KIA는 주중 수원으로 이동해 KT와 3연전을 치른 뒤, 광주에서 롯데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주홍철 기자

광주은행 오예진, AG 출전 티켓 따냈다

국가대표 최종 2차선발전 2위
팀 동료 안산은 5위, 출전 좌절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이 생애 첫 국가대표 1진에 뽑혔다. 오예진은 지난 17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6 양궁 리커브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2위를 차지하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게임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선발전은 3차 선발전 통과한 리커브 및 컴파운드 남녀 각 8명이 참가해 최종 1-2차 평가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6점 만점 기준 1-3위 선수들에게 국제대회 출전권이 주어졌다. 오예진은 강재영과 1-2차 평가전 배점 합계는 15점으로 같았지만 전체 평균기록에서 강재영(28.002)에 이어 27.970점을 기록, 3위 이윤지(현대모비스·종합배점 12점)와 함께 국제 종합대회에 함께 나선다. 오예진은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생애 첫 국가대표 1진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 기쁘다"며 "올해 광주은행에 입단하면서 실업 선수로서의 책임감도 한몫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훈련에 매진해 아시아게임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열린 2026 양궁 리커브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2위를 차지하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게임 출전 티켓을 거머쥔 오예진이 환하게 웃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제공>

한편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이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은메달을 차지한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최종 1-2차 평가전에서 연달아 5위에 머물러 아시안게임 출전이 좌절됐다. 남자부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양궁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김제택(예천군청),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1-3위로 최종 평가전을 통과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3회 연속 메이저 국제 종합대

회에 출전한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컴파운드 종목에서는 만 14세 최연소 국가대표가 탄생했다. 2011년생 강연서(부천G-스포츠)가 여자 컴파운드 3위에 올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국 양궁 역대 최연소 국제 종합대회 출전이다. 종전 기록은 도쿄 올림픽 김제택의 만 17세다. /박희중 기자



2026 양구평화 전국유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세한대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세한대 유도 단체전 정상 '우뚱'

2026 양구평화 전국유도대회...개인전 장세창 '銀', 김민준·정민서 '銅'

세한대 유도부가 단체전 정상에 우뚱섰다. 세한대는 지난 18일 양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6 양구평화 전국유도대회'에서 단체전 결승에서 마산대를 상대로 한수 위 기량을 선보이며 3승1무1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영남대와 청주대를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한 세한대는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배치를 바탕으로 전남 유도의 저력을 과시했다. 세한대는 2024양구평화회(금1·은1·동1)과 2025 춘계 전국남녀대학유도연맹전(동1, 단체전

동), 청풍기 전국대회(단체전 동), 2025 하계 전국남녀대학유도연맹전 체급별 단체전 우승에 이어 명실상부 전국 대학 유도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개인전에 출전한 장세창(1년)은 남자 -81kg급 결승전에서 김민준(한국체대)에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준(4년)은 남자 +100kg급에서, 정민서(1년)는 여자 +78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단체전 우승을 이끈 노박환 세한대 감독은 대회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박희중 기자

서구청 펜싱, 여자단체전 우승·남자단체전 준우승

협회장배...김채린, 개인전 3위

서구청 펜싱팀이 제55회 협회장배 전국펜싱 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체전 우승, 남자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다은, 김수빈, 김채린, 정지윤이 팀을 이룬 서구청 여자 펜싱팀은 지난 18일 해남 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예체 단체전 결승에서 경기도청을 4대3으로 꺾고 우승했다. 서구청 여자 에페팀은 앞서 8강에서 충북도청에 3대2, 4강에서 전남도청에 기권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대인, 김상진, 김재원, 이승현이 호흡을 맞춘 서구청 남자 에페팀은 4강에서 해남군청을 4대3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으나 복병 경남체육회에 3대4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지난달 열린 실업펜싱연맹회장배에서 개인전 3위를 차지했던 김채린은 4강에서 만난 신현아(화성특별시청)에게 7대8, 1점차로 패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8일 열린 제55회 협회장배 전국펜싱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체전 우승, 남자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서구청 펜싱팀이 박광현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청 제공>

박광현 서구청 펜싱팀 감독은 "서구청의 관심과 지원이 선수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 것 같다"며 "무엇보다 선수 개개인의 목표가 뚜렷하고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원팀'의 에너지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이어 "특히 여자 선수의 과감한 교체로 팀이 전반적으로 젊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광주, 울산전 1대5 참패...4연패 수렁

개막 4연전을 무패로 선전하던 광주FC가 4연패에 빠졌다. 광주는 19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 K리그1 8라운드 원정에서 1-5로 완패하며 '끝까지 탈출'에 실패했다. 전반 19분 정승현의 헤더로 선제 실점을 내준 광주는 1분 뒤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었다. 전반 20분 김진호의 롱 패스와 안혁주 헤더로 평균 불을 신창무가 환상적인 왼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기쁨도 잠시. 광주가 균형을 깨는 두 번째 실점을 허용했다. 전반 27분 이규성 크로스를 받은 말경이 문전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며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다. 분위기를 탄 울산이 공세를 이어갔고 설상가상으로 동점골 주역인 신창무가 전반 37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다. 신창무는 결국 문천서와 교체됐다. 1대2로 전반을 마친 광주는 후반 12분 세 번째 실점을 내줬다. 말경이 페널티 지역에서 돌파를 시도하다 안영규 발에 걸려 넘어졌다. 주심은 페널티 킥을 선언했다. 광주의 황의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키커로 나선 말



동점골을 터뜨린 신창무의 골 세리머니. <광주FC 제공>

경이 추가 골을 터뜨렸다. 광주는 2골 차를 좁히기 위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며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후반 45분 허울의 왼발 슈팅으로 네 번째 실점, 추가시간 4분 이민기의 페널티 킥 반칙으로 이동경에게 다섯 번째 실점까지 허용하며 1-5 패배로 마무리됐다. /박희중 기자